

# 하쿠타 나오키(百田尚樹)의 『개구리의 낙원(カエルの楽園)』 고찰\*

노윤선\*\*  
ysroh1008@naver.com

## <目次>

- |                       |                       |
|-----------------------|-----------------------|
| 1. 서론                 | 2.3 재일한국인에 대한 적대감     |
| 2. 본론                 | 2.4 재일한국인에 대한 추방 의지   |
| 2.1 과거 역사에 대한 책임 희석   | 2.5 전쟁가능은 국가 존속의 필요조건 |
| 2.2 재일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 3. 결론                 |

주제어: 하쿠타 나오키(Naoki Hyakuta), 『개구리의 낙원』(THE PARADISE OF FROGS), 혐한(K-Hate), 일본국 헌법제9조(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태평양전쟁(The Asia-Pacific War)

## 1. 서론

작품 『개구리의 낙원(カエルの楽園)』은 제목 그대로 개구리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현대 사회를 그리고 있는 우화이다. 『개구리의 낙원』은 작가 하쿠타 나오키가 “『영원한 제로(永遠の0(ゼロ))』를 뛰어넘는 나의 대표작”이라고 자부하면서 낸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을 쓴 시기는 2015년 가을이었으며, 출판된 것은 2016년 2월이다. 현대 일본사회 및 국제사회를 소재로 활용한 내용인 만큼 발매 뒤 약 1개월 후, 온라인 SNS인 트위터상에서의 반응이 뜨거웠다. 출간된 이후로 줄곧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였다. 그동안 『영원한 제로(永遠の0(ゼロ))』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海賊とよばれた男)』<sup>1)</sup>를 포함하여 20여 권 이상의 책을 낸 하쿠타 자신조차

\* 이 논문은 노윤선(2019)『일본 현대문화 속의 혐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에서 인용 및 발췌한 것임.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1) 두 작품 모두 영화는 아마자키 다카시 감독이, 만화책은 스모토 소이치 작가가 제작 및 발간하였다. 두 작품은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 12월 31일에 영화 <영원한 제로(永遠の0(ゼロ))>를, 2017년 1월 1일에 영화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海賊とよばれた男)>를 감상하면서 더욱 흥행하였다. 작품 『영원한 제로(永遠の0(ゼロ))』는 550만 부 이상,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海賊とよばれた男)』는 400만 부 이상의 판매 및 발행 부수로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들이다. 또한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海賊とよばれた男)』에서는 주인공과 『영원한 제로(永遠の0(ゼロ))』의 주인공이 직접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노윤선

도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던 적은 처음이라며 놀라워 한 작품이 바로 『개구리의 낙원』이라 할 수 있다.<sup>2)</sup>

작가 하쿠타는 “남경대학살과 위안부는 없었다.”, “도쿄재판은 도쿄 대공습이나 원폭투하를 눈속임하기 위한 재판이었다”라는 식으로 일본 역사 수정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이다. 하쿠타는 아베 총리와 직접 대담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간행하였는데, 그 책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sup>3)</sup> 그는 강연회에서도 “침략과 과오의 역사를 중·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성인이 되고 나서 알아도 된다.”라고 주장한 인물이다.<sup>4)</sup>

특히 일본 우경 문학작품은 2000년대부터 정치 및 사회 분야에서의 민족주의적인 흐름<sup>5)</sup>과 궤를 같이하면서 인기몰이하고 있다. 우경 문학작품 중에는 전범 미화나 역사 수정주의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아무런 제한 없이 일본 문화예술계 내에서 생산되고 대중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하쿠타 작품의 영화 연출을 맡은 아마자키 다카시 감독을 현재 2021년으로 연기된 동경(東京) 하계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의 총감독을 맡기기로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려는 일본 정치 상황이 문화계에 한 쪽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 하쿠타 나오키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작품『영원한 제로(永遠の0(ゼロ))』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海賊とよばれた男)』를 같이 분석한 것이 있다.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일본 우경 문학작품이 애국정신을 고취시킨다는 프레임을 이용하여 태평양전쟁에 대한 전쟁 가해 책임의 희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일본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18)「하쿠타 나오키(百田尚樹)의 『영원한 제로(永遠の0)』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海賊とよばれた男)』 고찰」『일본문화학보』제7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96-315

2) 2016년 3월에 『개구리의 낙원』책 사인회를 열기 전 폭파에고로 인하여 행사 당일 입구에는 10명이 넘는 경찰관이 동원되었으며, 행사장 내에는 사복경찰관도 대기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화는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작은 기사로 실리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그리고 『닛케이신문』에는 일절 보도가 되지 않았다. NHK 포함하여 기타 방송국에서도 폭파에고에 관한 기사 내용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하쿠타는 자신의 책이 매스컴에서는 소개하고 싶지 않은 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디브레이크가 매스컴 혹은 대중매체나 민주당으로 비유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거북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百田尚樹(2016)『『カエルの楽園』は「悪魔の書」ではない』『Hanada』、東京: 飛鳥新社, pp.230-231

3) 安倍晋三·百田尚樹(2013)『日本よ、世界の真ん中で咲き誇れ』ワック

4) 위의 논문, 노윤선(2018), pp.296-315

5) 일본 정치의 보수 우경화와 이를 지지하는 일본국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① 1990년대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정체, ② 보수주의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일본 내 혁신세력의 쇠퇴, ③ 일본 정부의 ‘사죄외교’에 대한 반발, ④ 청년층의 우경 신봉, ⑤ 보편적인 가치관보다 국가주의가 우선할 수 있는 일본적 특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태기(2006)『한일민족문제연구』제11호, 한일민족문제학회, pp.306-307

서사시를 강조함으로써 일본(인)의 명예를 강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왜곡된 민족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특히 2006년에서 2015년 사이의 하쿠타 작품 발행 시기와 아베 총리가 집권한 시기들을 살펴보면 2006년 7월에 간행된 아베 총리의 『아름다운 나라(美しい国)』, 2006년 8월에 간행된 작품 『영원한 제로(永遠の0(ゼロ))』, 2006년 9월의 아베 신조 1차 내각 성립 그리고 2012년 7월에 발행된 작품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海賊とよばれた男)』, 2012년 12월의 아베 신조 2차 내각 성립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14년 12월의 아베 신조 3차 내각 성립과 2015년 가을에 쓰기 시작한 하쿠타의 작품 『개구리의 낙원』은 아베 신조 정권의 지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따라서 일본의 우경화 및 왜곡된 민족주의 문제를 일본 우경 문학작품 중 하나인 『개구리의 낙원』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작품의 다양한 논점을 아베 정권과 상관관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2010년대 우경 엔터테인먼트 작품의 시대적 스펙트럼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과거 역사에 대한 책임 회석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청개구리들은 나파주 나라의 평화를 유지해 준다고 생각해 온 3계와 사과의 노래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다. 옴개구리가 3계로 인해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스템 보드라는 늙은 독수리가 지켜주고 있다는 연유로 나파주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작가 하쿠타가 독자들에게 3계 즉 평화헌법 9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며, 미국이 일본을 반드시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맹신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소크라테스는.....피에르가 말한 “나파주의 개구리는 잔혹한 개구리”라는 말이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 점을 로베르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로라들도 한때 자신들의

6) 앞의 논문, 노윤선(2018), pp.296-315

7) 2017년의 일본 중의원선거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가 작성한 「오른쪽으로 가는 일본: 키워드로 보는 우경화」를 참조하길 바란다. 김남은·신경미·최가형·손주연 외 22인(2018)『일본과 중국의 문화 콘텐츠 엿보기』트리펍, pp.96-100

선조가 과오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했었지”라고 로베르트는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게다가 ‘사과의 노래’나 나폴레옹 바위와 관련된 일도 있어.” “소크라테스, 아무래도 이 나라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어쩌면 과거에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그리고 움개구리들은 그 일을 계속해서 사과하고 있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혹시 ‘3계’의 비밀도 거기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sup>8)</sup>

모든 의혹의 시작은 늑개구리가 움개구리에 대해 반복해서 말한 ‘잔혹한 개구리’라는 단어에서 시작한다. 젊은 움개구리들이 아닌 선조들이 저지른 과오로 인해 사과의 노래가 생긴 것이며, 그 과오로 나폴레옹 바위와 관련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나폴레옹 바위는 미국의 히로시마(広島) 원폭투하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로리는 나파주 나라의 암컷 움개구리인데, 움개구리를 굳이 암컷과 수컷으로 구분하여 마치 로리들만이 선조들의 과오를 꼬집어서 언급하고 있는 뉘앙스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는 일본의 젊은 남성들보다 젊은 여성들이 작가의 주장에 반(反)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작품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작품의 결말에서 3계를 맹신한 로리는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어.” 로베르트 말에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 “하인츠는 어때? 그러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피에르가 나파주의 개구리는 흥폭하고 잔혹한 개구리라고 말했어요” 하인츠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피에르 뿐만 아니라, 웬엔 나라의 개구리들은 줄곧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합니까?” “다들 진짜라고 말합니다.”라며 하인츠는 좀 말하기 거북한 듯이 답했습니다.<sup>9)</sup>

주인공 청개구리인 로베르트와 소크라테스가 나파주 나라의 과오를 살펴보기 위해 하인츠에게 이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였다. 여기서 하인츠는 청년 움개구리인데, 전쟁의 경험을 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과거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설정 자체가 모순적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결국, 자세하고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더욱이 나파주 나라 선조들의 과오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면 태평양전쟁과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작품 속에서 하인츠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모습과 말하기 거북해하는 모습들은 마치 선조들의 과오를 숨길 수 있으면 끝까지 숨기고 싶어 하는 내적인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비친다. 이것은 작품 속의 움개구리들에게, 그리고 이 작품을 접하게

8) 百田尚樹(2016)『カエルの樂園』新潮社, pp.53-54 이하 텍스트, 페이지로 표기한다.

9) 텍스트, p.56

될 태평양전쟁의 피해국 및 국민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잔혹한 짓을 한 거야?” “훨씬 오래전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선조가 늑개구리의 아이들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늑개구리를 노예로 만들었다고, 나파주에 있는 늑개구리들은 그 후손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로베르트는 놀랐습니다. “그건 확실한 얘기입니까?” “옛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모두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sup>10)</sup>

젊은 움개구리인 하인츠는 나파주 선조들의 과오가 아주 ‘옛날 일’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듯이 설명하고 있다. 선조들이 늑개구리들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것은 조선인 학살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를 의미할 것이다. 특히 조선인 학살 중 가장 잔인하고 인명피해가 가장 심했던 사건은 관동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인해 6,661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무고하게 학살된 일이었다. 하지만 젊은 움개구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로서 존재하는 역사에 대하여 본인이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고자 하는 행동을 보인다. 단순하게 ‘많이’라고 언급하는 것과 ‘6,661명’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기술방법은 자칫 일본에 불리한 역사 사실을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졸지에 믿을 수가 없군. 왜냐하면, 우리들이 만난 나파주의 개구리들은 정말 친절한 개구리들뿐이었어.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하인츠도 울상을 지었다. “실은 나도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들의 먼 선조들이 그런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것을. 하지만 디브레이크는 절대로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브레이크라고?” “이 나라에서 가장 박식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연꽃의 늪지대에서 모두를 모아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줍니다.”<sup>11)</sup>

젊은 움개구리는 끝까지 자신의 선조들이 저지른 잔인한 역사적 사실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의 텍스트에서 말한 ‘어른들’의 구체적인 대상 중 하나로서 ‘디브레이크’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특히 작품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개구리 중 하나가 디브레이크이다. 즉 작품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에 조간신문과 석간신문을 발행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는 것은 일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작가 하쿠타는 디브레이크를 결코 권력자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개구

10) 텍스트, p.56

11) 텍스트, pp.56-57

리들을 조작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디브레이크 자신들은 스스로를 정의이자 양심이라 믿고 있다며, 작가 하쿠타는 작품을 통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디브레이크는 당연히 『아사히신문』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sup>12)</sup> 하쿠타는 작품 내에서뿐만 아니라 작품 밖에서도 『아사히신문』의 논조에 대해 항상 비판적인 입장을 강경하게 표출하고 있었다.

## 2.2 제일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다음은 나파주와 옴개구리에 대해 찬양과 찬사를 보내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로베르트가 옴개구리를 만나게 되는 작품 속의 일부 장면이다. 작품 중간에 청개구리인 소크라테스와 로베르트가 만난 옴개구리는 소크라테스와 로베르트를 바보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이 옴개구리는 실제로 옴개구리가 아닌 옴개구리를 닮은 늑개구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때, 마치 두 마리를 바보 취급하는 웃음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올려다보니 언뜻 근처에 서 있는 나뭇가지 위에서 한 마리의 젊은 옴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옴개구리는 나뭇가지에서 소크라테스 일행 주변으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나파주가 훌륭한 나라라고?” “응 그렇게 말했어. 국가뿐만 아니라, 나파주의 개구리들도 훌륭한가 봐.” 옴개구리는 ‘흥’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외지인이구먼. 나파주의 개구리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 않아. 나파주의 개구리들은 모두 상냥하고 친절해.” 로베르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너희들의 눈은 있으나 마나 하네.” 젊은 옴개구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sup>13)</sup>

이 인용문에서 청개구리인 소크라테스와 로베르트가 나파주와 옴개구리에 대해 칭찬하고 있는 근거는 앞서 말했듯이 ‘3계(三戒)’와 ‘사과의 노래(謝りソング)’인 것이다. 사과의 노래를 통해 모든 대상에게 사과하고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것은 사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과의 노래를 더욱 견고하게 한 것이 3계라 여기고 있다. ‘개구리를 믿고, 개구리를 해치지 않고, 개구리를 해치려는 힘을 기르지 않는다’라는 국가원칙에 의해

12) 百田尚樹(2016)『『カエルの楽園』刊行記念インタビュー:現代を俯瞰する物語』『波』東京:新潮社, pp.2-5; 百田尚樹(2016)『『カエルの楽園』は「悪魔の書」ではない』『Hanada』東京:飛鳥新社, pp.226-228; 百田尚樹・井澤元彦(2017)『百田尚樹『カエルの楽園』vs.井澤元彦『日本』人民共和國』: [ビッグ對談]「ゆでガエル楽園国家 日本が植民地にされる日」『歴史通』東京:ワック, p.141

13) 텍스트, pp.50-51

황소개구리들<sup>14)</sup>이 나파주에 침입하려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평화로운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파주개구리들이 본성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원래 나파주 개구리는 정말 흥폭하고 잔혹한 개구리란 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껏 보아온 가장 잔혹한 개구리보다도 훨씬 잔혹한 개구리가 나파주개구리야.” “아까부터 당신이 말하는 내용은 겸손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속스러움을 감추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겸손이라고?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왜냐면 자기 자신들의 얘기를 너무나도 나쁘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개구리는 웃었습니다. “나는 옴개구리가 아니야.” 자세히 보니, 옴개구리를 닮았지만, 몸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늑개구리인 피에르야. 옴개구리와는 달라.” “너무 닮아있어서 잘못 봤어.” 로베르트의 말에 피에르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저 못생긴 옴개구리와 닮았다고?! 잘 봐. 전혀 다르잖아. 저런 열등한 개구리와 나는 조금도 닮지 않았어. 그런 말을 한 번 더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sup>15)</sup>

이 인용문은 작품 속의 늑개구리인 피에르를 생김새가 닮은 옴개구리와 헛갈려하는 장면이다. 옴개구리와 늑개구리를 구별 못 하자 늑개구리는 격하게 화를 내고 있다. 늑개구리는 나파주라는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나파주의 국민인 옴개구리와 비슷하게 생겨있는 것으로 보아 제일한국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작품의 후반으로 갈수록 분명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늑개구리가 옴개구리를 혐오하고 있다는 장면은 작가 자신이 항상 품고 있었던 생각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작가는 한국과 일본을 헤어진 남녀관계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한국을 여자, 일본을 남자라는 성별로 인식을 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한국과 일본이 옛날에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서 자식들에게 일본은 나쁘다는 확실적인 교육을 주입한 뒤에 어른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제일한국인을 포함한 한국(인)이 일본을 싫어하는 원인으로 한국에는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이나 『Will』과 같은 언론사가 없으므로, 일본을 공통의 적으로 간주하는 기반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하고 있다.<sup>16)</sup>

14) 작가 하쿠타는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황소개구리들이 북한이라고 직접 가리켜 언급하기도 하였다. 百田尚樹·井澤元彦(2017)「百田尚樹『カエルの楽園』vs.井澤元彦『日本』人民共和國」:[ビッグ對談]「ゆでガエル楽園国家」日本が植民地にされる日」『歴史通』東京: ワック, p.147

15) 텍스트, pp.51-52

16) 百田尚樹·井澤元彦(2017)「百田尚樹『カエルの楽園』vs.井澤元彦『日本』人民共和國」:[ビッグ對談]「ゆでガエル楽園国家」日本が植民地にされる日」『歴史通』東京: ワック, pp.140-141

## 2.3 재일한국인에 대한 적대감

이 작품에서는 위에서 보았듯이 재일 코리안에 대한 혐오의식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작품의 전개에 따라 이러한 인식은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어 간다.

다음날, 황소개구리들이 대규모로 중앙 초원에서 나파주의 중심지로 향해 왔습니다. 움개구리들은 겁에 질리면서도 황소개구리가 제 것인 양 나파주 나라를 누비며 다니는 것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소개구리를 대환영한 개구리들도 있었습니다. 피에르들 즉 엔엔 나라의 늑개구리였습니다. 피에르는 손을 흔들면서 황소개구리에 다가가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황소개구리는 나파주의 중심지 대부분을 점거했습니다. 연꽃의 늪도, 축제 광장도, 원로회의가 열리는 작은 섬의 연못도 모두 황소개구리들 것이 되었습니다.<sup>17)</sup>

작품 『개구리의 낙원』의 결말은 결국 나파주가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3계가 나파주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움개구리들은 황소개구리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황소개구리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공산주의를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남한에서도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통칭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나파주를 점령한 황소개구리를 유일하게 환영한 개구리는 늑개구리들로 표현되고 있다. 즉 작가 야쿠타는 늑개구리로 비유한 재일한국인들을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일한국인들이 마치 일본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있음은 ‘중요’를 내포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작가 야쿠타의 이러한 인식 중에 보이는 사고법은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의 미래에 일말의 도움이 안 되며 그들을 몰아내야 할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작품을 접한 일본의 독자들과 서평들을 살펴보면 작품 『개구리의 낙원』을 현재 일본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이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우화로만 치부하고 넘길 수 없는 작품임이 분명하다.

황소개구리가 나파주를 빼앗고 나서 누구보다 생활이 나아진 것은 피에르들 즉 늑개구리였습니다. 움개구리가 아닌 청개구리인 소크라테스와 로베르트는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더 나파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나파주에 와서 언제부턴가 3계는 멋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3계는 나파주의 움개구리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평화로웠던 나파

17) 텍스트, p.255



주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잘 모르겠지만, 3계는 종교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나파주의 옴개구리들은 순교한 거야.”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신앙에 순직한 옴개구리들은 행복했을까.” “모르겠어. 로베르트는 어떻게 생각해?” 로베르트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sup>18)</sup>

나파주가 황소개구리들에게 점령당한 뒤, 가장 반사이익을 얻은 개구리들이 늪개구리라고 한다. 왜냐하면, 나파주의 모든 옴개구리가 황소개구리들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옴개구리들이 믿어왔던 3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다. 작가 하쿠타가 아베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평화헌법 9조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쉬운 우화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그 속에서 작가는 현재 일본이 재일한국인을 위해 어떠한 정책도 만들어서 안 되며, 기존의 정책들 또한 축소 및 폐지해야 된다는 의도가 있었음을 위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파주 나라의 암컷 옴개구리인 로라가 황소개구리들에게 팔과 다리가 찢기고 잡아먹힌 뒤, 땅에 던져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열거되고 있다. 로라는 잔인하게 죽어가는 와중에도 나파주에는 3계가 있으므로 다행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간다. 이런 극단적인 장면은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며, 실제로도 그러하였다. 이것은 마치 과거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취급당한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해 반대로 복수하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의 역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품의 결론이 끝을 맺고 있다.

## 2.4 재일한국인에 대한 추방 의지

협한 담론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일본에 계속된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그에 의한 누적된 피로도의 반작용으로 협한이 더욱 가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작품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로베르트는 그 기세에 놀려, “미안해”라며 사과했습니다. “홍. 옴개구리처럼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몸은 용서 안 해준다. 네놈이 말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거야.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니까 기억해 뒤. 그리고 하나 더 말해두는데, 이 몸의 국가는 엔엔이라는 나라다. 엔엔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야. 극락과 같은 국가이지. 너희들도 언젠가 가보면 좋을 거야. 나파주따위 발끝에도 못 미치는 대단한 곳이니까.” 피에르는 그렇게 말한 뒤,

18) 텍스트, pp.261-262

배를 잔뜩 부풀린 채 사라졌습니다.<sup>19)</sup>

이 인용문에서 엔엔이라는 국가의 늪개구리가 나파주의 움개구리를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에서 ‘엔엔(エンエン)’이라는 의미를 ‘끊임없이(延々)’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에 빗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엔엔 국가를 작품 속에서 위대한 국가라 말하고 있는 것은 반어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가는 한국을 위해 일본이 철도를 만들어주거나 인프라 정비를 공헌해준 것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미화하는 것을 넘어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작가는 한국이 사죄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계속해서 일본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요요인으로 한국의 공산주의화를 꼽고 있다. 작가 하쿠타가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 반일과 친북의 노선이 강화되었으며, 이것이 일본에 위협으로 다가오리라는 것이다.<sup>20)</sup>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작품 『개구리의 낙원』의 결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작품 속의 나파주 나라는 황소개구리들한테 잔인하게 점령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기 때문이다.

“황당하군. 움개구리와 착각했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화내다니.” 로베르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맞아, 너무 비슷해 보였지만, 다른 개구리였어. 피에르 처지에서 보면, 닭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훨씬 싫은가 봐. 게다가 나파주리는 나라와 움개구리를 몹시 싫어하는 것 같았어.” “근데 그러면 피에르는 왜 이 나라에 있는 거지?” “우연히 들른 것뿐이잖아.” “엔엔 이라는 나라가 나파주 이상으로 대단한 국가라면 꼭 그곳에 가보고 싶네.” “응.”<sup>21)</sup>

이 인용문은 작품 속의 피에르가 움개구리와 닭았다는 이야기에 화를 내면서 움개구리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피에르는 움개구리의 나라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청개구리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장면이다. 이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인)이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늪개구리가 움개구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면서 왜 나파주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태평양전쟁의 패전국인 일본(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재일한국인 2세와 3세들이 어떠한 연유로 일본에 영주하게 되었는지부터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 텍스트, p.52

20) 百田尚樹·井澤元彦(2017)「百田尚樹『カエルの楽園』vs.井澤元彦『日本』人民共和國』: [ビッグ対談]「ゆでガエル楽園国家 日本が植民地にされる日」『歴史通』東京: ワック、p.140

21) 텍스트, p.53

그러나 일본과 같은 패전국이자 전범 국가인 독일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보여 주고 있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독일 총리는 유대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피해를 본 국가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반면, 패전국이자 전범 국가인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일본 또한 독일처럼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나라들에 대한 관계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함에도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텍스트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혐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피에르의 말처럼 나파주 나라 이상으로 엔엔 국가가 대단하다면 꼭 그곳에 가보고 싶다고 소크라테스와 로베르트가 말하고 있지만, 작품 속에서는 그러한 장면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피에르라는 늑개구리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츠가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피에르는 움개구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외지에서 온 개구리들은 구별이 어렵겠죠.” “피에르는 엔엔 이라는 나라의 개구리라고 말했었어.” “으음. 그렇지만 피에르는 나파주에서 태어나 나파주에서 자란 개구리입니다.” “어, 그런가.” “피에르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파주에서 태어나 나파주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파주에서 태어나 나파주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제 확실히 알겠어. 그러니까 피에르의 가족은 오랜 시간 나파주에서 살고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로베르트는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면 피에르들은 도대체 왜 엔엔에 돌아가지 않고, 나파주에서 살고 있는 거야? 피에르는 나파주보다도 엔엔이 훨씬 훌륭한 나라라고 말했어.” 하인츠는 모르겠다는 듯이 양팔을 조용히 벌렸습니다.<sup>22)</sup>

현재 나파주 국가에 살고 있는 피에르 가족들이 재일한국인 2세, 3세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다. 늑개구리들이 외지에서 온 개구리들임을 하인츠가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하인츠는 나파주 국가의 움개구리 청년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일한국인들이 처음에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일본에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는 재일한국인 1세대 중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일본은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대륙 진출을 위한 침략 전쟁을 일으켰으며,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였던 한반도에도 전쟁의 영향이 크게 미쳤다. 일본 정부는 1938년 4월 1일에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조선인 강제동원’은 1939년부터 1945년 8월까지 이루어졌다.

22) 텍스트, pp.54-55

동원 형식은 모집(1939-1942), 관알선(1942-1944), 징용(1944-1945)의 단계를 거치면서 강제성을 강화해갔다. 강제동원 된 조선인들은 1943년 말까지 약 40만 명에 달했으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44년 9월부터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징용을 실시하였다. 이렇듯 일본은 태평양전쟁의 승리를 위해 물품과 사람들에 대해 동원을 조직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쿠타는 그의 작품 속에서 재일 코리안의 이러한 역사적 문맥은 무시한 채,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들에 대한 배척 의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움개구리 청년인 하인츠는 늑개구리들을 단지 외지에서 온 거로 치부하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나파주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통해 일본의 험한 논자들이 재일 코리안에 대해서 갖는 배외주의와 유사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2.5 전쟁가능은 국가 존속의 필요조건

작품 『개구리의 낙원』의 줄거리는 소크라테스와 로베르트라는 주인공 청개구리 2마리가 악당에게 고향을 잃고 세계를 방랑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한다. 살기 위해 고향을 도망쳐 나와 낙원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어디든 자신의 고향과 같이 몸집이 큰 개구리들이 작은 몸집인 개구리들을 잡아먹는 세상뿐이다. 천신만고 끝에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움개구리의 나라에 도착한다. 청개구리 두 마리가 도착한 낙원인 나파주(ナパージュ)는 일본을 상징하며, 나파주의 주인인 움개구리는 일본인을 상징하고 있다. 나파주(NAPAJ)를 거꾸로 읽으면 JAPAN이 된다. 나파주는 특이하게도 몸집이 커다란 개구리들한테 습격을 안 받는 그야말로 낙원이었으며, 움개구리들은 평화롭고 온순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 나라는 어딘가 뒤틀려 있다. 온 국민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초에 싸울 힘을 갖지 않는다’라는 신조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sup>23)</sup> ‘3계(三戒)’라는 국가원칙이 있어서 ‘개구리를 믿고, 개구리를 해치지 않고, 개구리를 해치려는 힘을 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다른 개구리들이 나파주에 사는 움개구리들을 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3계는 원래 나파주 나라 위의 높은 바위에 자리 잡은 스팀 보드라는 독수리가 만들어 준 것이다. 더욱이 밤에는 다 같이 모여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는 노래도 합창한다.<sup>24)</sup> ‘사과의 노래(謝りソング)’를 부르면서 움개구리들이 한 짓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다. 이렇듯 평화에 흠뻑 취해 살아가는 움개구리 나라를 늑은 독수리가 빙빙 돌며 지켜준다.

23) 텍스트, p.30

24) 텍스트, p.41

하지만 옴개구리의 나라를 지키고 있던 한 마리의 독수리가 사라지자, 결국에는 황소개구리 떼가 옴개구리들이 살아가는 이상향에 파국을 몰고 온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늙은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고 있으며, 황소개구리 떼는 공산주의를 의미하고 있어 북한이나 중국, 남한에서도 공산주의를 이상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리키고 있다. 작가 하쿠타는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미국을 믿고 ‘평화헌법’을 지키며 냇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미·중·한·일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우화에 빗대어서 최종적으로는 평화헌법 9조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3. 결론

작품 『개구리의 낙원』이 개구리를 소재로 삼은 이유는 군집을 이루는 개구리들의 습성이 인간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류의 개구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청개구리 인 소크라테스와 로베르트는 이야기를 이끄는 주인공으로서 나온다. 『개구리의 낙원』은 『영원한 제로(永遠の0(ゼロ))』,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海賊とよばれた男)』와 함께 작가 하쿠타 자신이 스스로 “하쿠타 나오키의 3부작”이라 칭하고 있는 작품이다.<sup>25)</sup> 『영원한 제로(永遠の0(ゼロ))』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海賊とよばれた男)』가 과거 일본의 선조들에 대한 영웅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하지만, 『개구리의 낙원』은 현재 일본의 모습을 그리면서 미래의 일본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작품의 특성상 우화임으로 문체는 읽히기 쉬우면서, 내용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가 쉽고, 그 결말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이렇듯 우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본에 대해 현실적인 경고를 하는 작품이기에 일본 내에서는 『개구리의 낙원』을 ‘예언의 책’이라 부르기도 한다.<sup>26)</sup> 따라서 현재의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지킨다고 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전후 일본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우화를 이용한 작품인 것이다. 자신의 나라는 다른 국가가 아닌 스스로 지킨다는 상식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군사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문학작품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sup>27)</sup>

25) 百田尚樹(2016)『『カエルの楽園』は「悪魔の書」ではない』『Hanada』東京:飛鳥新社, p.234  
 26) 百田尚樹(2016)「トランプ大統領誕生で『カエルの楽園』が豫言の書になる日」『週刊新潮』東京:新潮社, pp.42-45  
 27) 櫻井よしこ(2016)『『カエルの楽園』私はこう読んだ: “ユデガエル”にならないために』『Hanada』東京:飛

게다가 작품 속에 함의되어 있는 일본의 위기상황 속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일본에 ‘끊임없이(延々)’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한국을 ‘엔엔(エンエン)’이라는 국가 이름으로 등장시킨다. 움개구리 청년인 하인츠는 단지 외지에서 온 늑개구리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나과주 국가에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며,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내용을 통해 일본의 험한 논자들의 양상과 유사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작가는 한국이 사죄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계속해서 일본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요요인으로 공산주의화를 꼽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반일과 친북의 노선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이 일본에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작품 『개구리의 낙원』의 결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작품 속의 나과주 나라는 황소개구리들한테 점령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우화라는 장치를 내세워 작가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결과적으로 일본과 일본인을 피해자로 몰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역사 사실들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패전 이후 현대문학 작품 속에서 가족애를 강조하면서 전쟁 가해 책임의 회석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어 왔다면, 하쿠타의 작품 『영원한 제로(永遠の0(ゼロ))』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海賊とよばれた男)』에서는 국가로 확대되면서 애국정신의 강화로 이어지고, 일본인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과정에서 민족주의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일본현대문화작품 속에서 애국심을 앞세운 전쟁 가해 책임의 회석과 민족주의의 폐해는 작품 『개구리의 낙원』을 통해 동시대의 보수우파들 주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강력한 혐한인식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현대문화작품 속 민족주의의 강화와 혐한이 노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작품 텍스트가 단순하고 단조로운 내용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혹은 외교적인 상황까지 은유적으로 비유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김태기(2006)『한일민족문제연구』제11호, 한일민족문제학회, pp.306-307  
 김남은·신경미·최가형·손주연 외 22인(2018)『일본과 중국의 문화 콘텐츠 엿보기』트리펍, pp.96-100  
 노윤선(2018)「하쿠타 나오키(百田尚樹)의 『영원한 제로(永遠の0)』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海賊とよばれた男)』고찰」『일본문화학보』제7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96-315

安倍晋三·百田尚樹(2013)『日本よ、世界の真ん中で咲き誇れ』ワック  
百田尚樹·井澤元彦(2017)「百田尚樹『カエルの楽園』vs.井澤元彦『「日本」人民共和国』:[ビッグ対談]「ゆでガエル楽園国家」日本が植民地にされる日」『歴史通』東京:ワック  
百田尚樹(2016)『カエルの楽園』新潮社  
\_\_\_\_\_ (2016)「『カエルの楽園』は「悪魔の書」ではない」『Hanada』東京:飛鳥新社  
\_\_\_\_\_ (2016)「トランプ大統領誕生で『カエルの楽園』が豫言の書になる日」『週刊新潮』東京:新潮社  
\_\_\_\_\_ (2016)「『カエルの楽園』刊行記念インタビュー: 現代を俯瞰する物語」『波』東京:新潮社  
櫻井よしこ(2016)「『カエルの楽園』私はこう読んだ: “ユデガエル”にならないために」『Hanada』東京:飛鳥新社

---

논문투고일 : 2020년 03월 06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20년 05월 07일  
2차 수정일 : 2020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5월 20일

---

## 하쿠타 나오키(百田尚樹)의 『개구리의 낙원(カエルの楽園)』 고찰

노윤선

『개구리의 낙원』은 현재 일본의 모습을 그리면서 미래의 일본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작품 속에 함의되어 있는 일본의 위기상황 속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함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끊임없이(延々)’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여, 우리나라를 ‘엔엔(エンエン)’이라는 국가이름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옴개구리(일본인) 청년인 하인츠는 단지 외지에서 온 늙개구리(재일한국인)들이 자자손손대대로 나파주(일본)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며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내용을 통해 일본 혐한론자들의 양상과 유사함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전쟁가해회석과 왜곡된 민족주의 그리고 혐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작품 속에는 피에르(재일한국인)가 옴개구리(일본인)를 싫어함에도 피에르가 옴개구리의 나라(일본)에 살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옴개구리의 청년인 하인츠(일본의 젊은이) 또한 단지 외지에서 온 늙개구리(재일한국인)들이 자자손손대대로 나파주(일본)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인 하인츠에게 나파주 나라의 과오를 묻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으며, 결국 하인츠는 옛날 일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마치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듯이 설명하고 있다. 젊은 옴개구리는 끝까지 자신의 선조들이 저지른 잔인한 역사적 사실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일본에게 불리한 역사사실을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다.

## A Study on 『The Paradise of Frogs』 of Naoki Hyakuta

Roh, Yoon-Seon

The Paradise of Frogs describes the image of Japan of today and simulates Japan of the future. The most distinctive thing about the novel is that this reveals the recognition and the thought of Koreans living in Japan in the crisis of Japan, definitely. For instance, Korea is named ‘Ang-Ang(エンエン)’, which refers to a metaphor of Korea’s ‘constant(延々)’ demand for an apology from Japan. Haintzu, a wrinkled frog man(Japanese), is displeased with that marsh frogs(Koreans living in Japan) from other areas live in Napaju(Japa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telling them to go back to their country, he shows similar aspects to the anti-Korea people in Japan. In particular, this novel dilutes the damage to other country during the war and contains distorted nationalism and anti-Korean sentiment, complexly. There are scenes everywhere in the novel not to understand that Pierre(a Korean man living in Japan) lives in the country of wrinkled frogs(Japan), even though he hates wrinkled frogs(Japanese people). Haintzu, a wrinkled frog(Japanese young man), is also frowned upon that march frogs(Koreans living in Japan) from other areas live in Napaju(Japa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Besides, there is a ridiculous scene asking Haintzu of the young generation, who did not go through the war, about the fault of Napaju and in the end, he explains, as if it is never irrelevant to him, mentioning it was a thing of the past. The young wrinkled frog keeps denying the cruel historical fact caused by his ancestors and this may leave room to misunderstand that Japan tries to deny and conceal the historical fact that is unfavorable to them.